



미 증시, 안전자산선호심리 완화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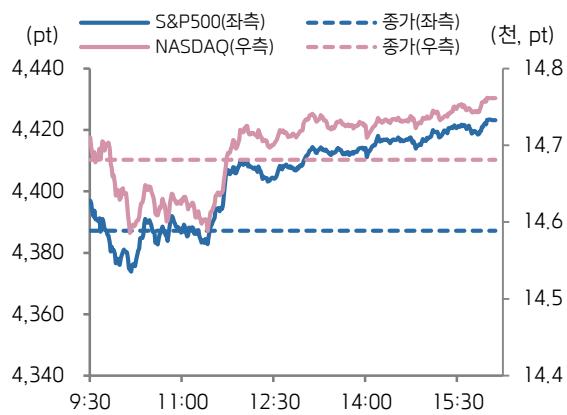
3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 지난 2 일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 등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며 출발. 이후 타이슨푸즈(-0.1%) 등 일부기업들의 호실적 소식, AMD(+3.6%), 애플(+1.2%) 등 대형 테크주들의 실적 기대감 등이 안전자산선호심리를 완화시킴에 따라 전거래일 낙폭이 커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다우 +0.8%, S&P500 +0.8%, 나스닥 +0.5%).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0.2%)을 제외한 에너지(+1.8%), 헬스케어(+1.4%), 산업재(+1.4%), 금융(+1.1%) 등 전업종이 강세.

뉴욕 연은에서 공개한 2 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분기대비 0.3 조달러 증가한 14.9 조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미국 내 부동산 시장 강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모습. 보우만 연준 이사는 최근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평년 수준에 비해 고용이 낮은 상황에 있다고 지적. 이와 동시에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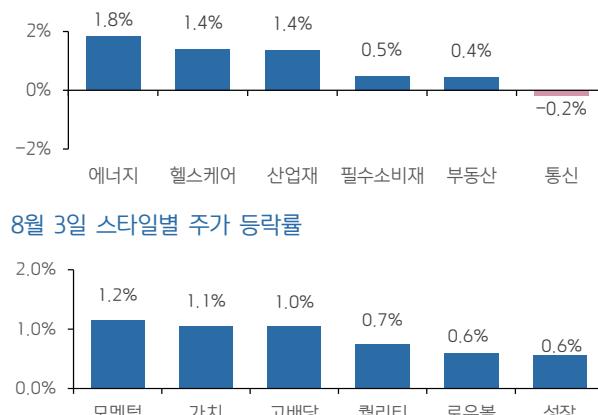
미국 신규 확진자수는 12.7 만명(2 일 기준)으로 2 주전 대비 4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델타변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뉴욕 시에서도 실내 활동 참여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 이로 인해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 근로자들의 고용시장 복귀를 지연시키면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행하는 등 백신 보급으로 인해 봉쇄보다는 관리로 코로나 대응에 나서고 있으므로, 전염병 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문제는 “경기 회복 지연(or 경기 둔화) vs 연준의 조기 긴축”이라는 상충적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6 일(금)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가 이 같은 혼란을 정리할 단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표 발표 전까지 미국 증시에서도 눈치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S&P500&NASDAQ 일중 차트(8월 3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9.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업황 투자심리 개선됐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추가 강세 여부
2. 중국 게임 산업 규제 가능성에 따른 국내 게임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SK 이노베이션,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기업 실적 발표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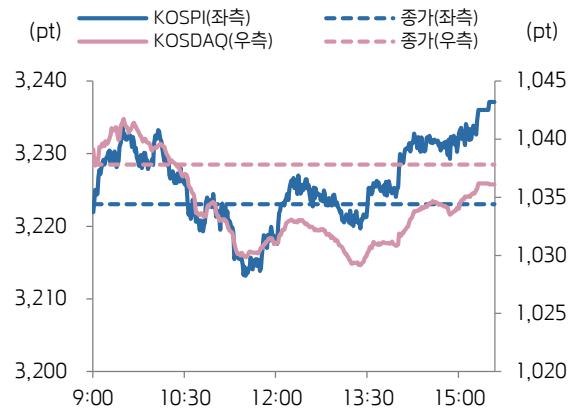
3 일(화) 코스피는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이 경기민감주들 위주로 하락 압력을 가했으나, 업황 센티멘트 개선에 따른 삼성전자(+2.6%), SK 하이닉스(+3.5%) 등 반도체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 장중에는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불안감 증폭으로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코스피 +0.4%,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의료정밀(+3.6%), 전기전자(+2.1%), 운수장비(+0.9%) 등이 강세, 철강금속(-3.9%), 기계(-1.7%), 운수창고(-1.0%)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6,626 억원 순매수, 기관과 개인이 각각 350 억원, 6,693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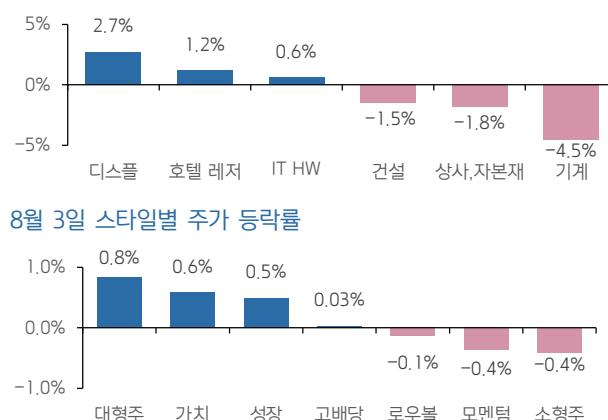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전거래일 미국 증시 반등, 원/달러 환율 상승세 진정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삼성전자 등 대형반도체주들이 업황 센티멘트 개선,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에도 삼성전자 비중이 낮은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한 수급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다만, 6 일(금) 미국의 고용지표 및 그와 연관된 연준의 정책 스케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 시,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또한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중 중화권 증시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3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